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물 이용행태 사례 연구

- 지역 역사교사모임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Archival Seeking Behavior of Korean History Teachers in High Schools: Focused on the Local Communities of History Teachers

정 경 희(Kyoung-Hee J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3. 기록물 이용현황 |
| II. 사회과 교과에서 기록물의 중요성 및
선행연구 | 4. 기록물 탐색경로 |
| 1. 사회과 교과에서 기록물의 중요성 | 5. 기록물 이용시 장애요인 및 활용
방안 |
| 2. 선행연구 | IV. 설문결과 요약 및 고찰 |
| III. 역사교사 기록물 이용행태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 1. 설문결과 요약 |
| 1. 조사방법 및 내용 | 2. 해석과 논의 |
| 2.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 | V.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물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3번의 사전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개 지역 역사교사 모임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록물과 기록관에 대한 인식, 기록물 이용현황, 기록물 탐색경로, 기록물 이용시 장애요인 및 서비스 방안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역사교사들은 주로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력이나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에서 기록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일정이나 교사의 시간 부족 등은 기록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들은 향후 수업에서 기록물이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DB가 구축되어야 하며, 기록물에 대한 해석 등이 부여된 가공된 형태의 자료집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 기록이용자연구, 역사교사, 역사수업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rchival use behavior of history teachers in high schools. The study conducted 3 times interviews with high school history teachers and carried out a survey on recognition of archives, archival use, archival seeking behavior, and barrier factors for archival use to 30 teachers from the 2 local communities of history teachers. According to the survey, history teachers have used archives for raising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by students in their classes. But the tight curriculums of history and the lack of time to search archives were barrier factors for teachers to use archives in their classes.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suggested that integrated DBs of archives in Korea and source books with commentaries need to promote use of archives in history classes

Key W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 Archives, Archival User Studies, History Teachers, History Classes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겸임교수(libinfor@hanmail.net)

• 접수일: 2007년 11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2월 24일

I. 서론

아키비스트들은 기록관의 주 이용자 그룹이 학자나 연구자라고 가정하고 이들 그룹에 맞춘 서비스를 해 왔으나, 이들의 생각처럼 기록물이 학술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거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¹⁾ 이에 따라 국외 기록관의 경우 다양한 이용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 기록관은 현대 기업 마케팅의 주요 전략인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를 통한 표적마케팅(target marketing)의 개념을 적용하여 각 이용자 그룹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자원기반학습(Resource Based Learning)이 중시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기록관의 중요한 표적 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록관의 서비스는 이용자 그룹에 따라서도 달라져야하지만, 동일한 그룹이라도 그 기관이 속해 있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 제도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수업의 경우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철학, 교육환경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그룹을 위한 기록관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그 나라의 교과과정의 특성과 교사와 학생들의 기록물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록관의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 및 기록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미 국외의 기록관에서 교사와 학생을 중요한 이용자 그룹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서도 이들 그룹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 중 역사교과에 기록물이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기록물 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운영의 준거가 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특성을 고찰하여 기록물 활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자료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록물이나 기록관에 대한 인식, 기록물 이용현황, 기록물 탐색행태, 장애요인, 수업에서 기록물 이용활성화에 대한 견해 등 크게 네가지 분야에 걸쳐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조사결과의 의미와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지역 모임 중 2개 지역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두개 지역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설

1) Elsie T. Freeman, "In the Eye of the Beholder: Archives Administration from th User's point of View," *The American Archivist*, Vol.47, No.3(1984), p.116.

문지의 내용구성 및 역사수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세 번의 개별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두개 지역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는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물 이용현황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기록관이 고등학교 역사수업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의 역사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두개의 지역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역사교사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II. 사회과 교과에서 기록물의 중요성 및 선행연구

1. 사회과 교과에서 기록물의 중요성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과운영의 준거가 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과(Social Studies)는 종래의 일반사회, 역사, 지리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교과들이 하나의 교과로 합쳐진 것으로서, ‘민주적 시민의 자질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역사교육은 역사가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해 보도록 하는 ‘역사적 사고력의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²⁾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이전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 1~10학년까지를,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이전의 고등학교 2~3학년인 11~12학년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³⁾

사회과 교과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인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수준별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10학년의 국사과목은 저학년에서 학습한 인물사, 생활사, 사건사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류사 중심의 역사를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⁴⁾ 또한 11~12학년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있는데, 이는 10학년의 국사과목과 연결되어 국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역사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과목으로서 특히, 그 교재가 다양한 탐구 자료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지적인 탐구심과 상상력이 강조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⁵⁾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기록물을 활용한 교수,

2) 주용영,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본 역사수업 환경의 구조와 성격,” 역사교육논집, 제26호(2000), pp.144-146.

3) *Ibid.*, p.150.

4)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7)(서울: 교육부, 1997), p.85.

5) *Ibid.*, p.127.

학습,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예컨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21개 항목 중 아.항은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과 평가방법 15개 항목 중 가 항의(2)는 “지리적 현상, 역사의 흐름, 현대 사회의 현상과 특성에 대한 통합적, 종합적 이해 정도와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10학년 국사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 중 마 항은 “역사 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이며, 바 항은 “학습 내용에 따라 강의, 문답, 토의, 탐구, 사료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변화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10학년의 국사교과 평가방법 중 다 항은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자료 분석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11, 12학년에서의 한국 근·현대사 교수·학습방법 중 바 항은 “학습 내용에 따라 문답, 토의, 사료 학습, 멀티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변화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 중 나 항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탐구 기능, 자료 분석 능력, 태도, 가치 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로 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사회과 교과와 교수 및 학습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나 선택중심교육과정 모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역사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평가에 있어서도 역사자료를 획득하거나 조직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이를 분석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침은 곧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사회과, 특히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이 중요한 학습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기록물 이용자 연구(archival user studies)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역사학자, 학생, 시각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어 왔지만,⁷⁾ 그중 특히 기록물을 이용하는 연구자 그룹에 치우쳐 있었다.⁸⁾ 그러나 미국의 경우 초·중등 교육에서 질문기

6) *Ibid.*, pp.82-114.

7)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2nd ed.(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pp.282-290.

8) Hendry, Julia, “Primary Sources in K-12 Education: Opportunities for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Vol.70, No.1(2007), p.115.

반 교육(inquiry-based learning)이나 문서기반 질문(document-based question) 등이 중시되면서 기록물이 중요한 교수도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가 기록관의 중요한 이용자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다.⁹⁾

초·중등학교 이용자 그룹에 대한 중요한 연구로서 Gilliland-Swetland¹⁰⁾는 일차자료를 교과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California 남부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차자료의 디지털화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인, 일차자료 활용목적 및 이를 활용한 학생들의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차자료와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들에 대하여도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화를 선호하는 기록물은 뭔가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한 자료나 특정 주제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등임을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특히 표준교과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멀티미디어와 결합된 자료 및 특정 주제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자료 등에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은 일차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밝혔다.

이듬해 Gilliland-Swetland 등¹¹⁾은 후속 연구로서 일차자료를 수업에 결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과학과 과학전공 교사 두 명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일차자료 이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비록 분야가 다르지만, 두 명의 교사가 일차자료 이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일차자료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과학 전공 교사의 경우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과학 전공 교사의 경우 과학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Gilliland-Swetland 등은 초·중등학교 수업을 위한 기록관의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수업을 위한 일차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일차자료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문제와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교실에서의 일차자료기반 학술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한 Gilliland-Swetland의 이러한 연구와 별도로 교사와 학생이 기록관의 중요한 이용자이므로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연구로서, Hendry의 연구¹²⁾와 Cook의 연구¹³⁾를 들 수 있다. Hendry는 미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 평가는 기록물 분석 능력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록관은 향후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디지털화 및 서비스를 계획할 때 교사와 학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ok은 캐나다의 역사

9) *Ibid.*, p.114.

10) Anne J. Gilliland-Swetland, "An Exploration of K-12 User Needs for Digital Primary Sources Materials," *The American Archivist*, Vol.61, No.1(1998), pp.136-157.

11) Anne J. Gilliland-Swetland, Yasmin B. Kafai, and William E. Landis,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to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A Case Study of Teachers' Perspective," *Archivaria*, No.48(1999), pp.89-116.

12) Julia Hendry, "Primary Sources in K-12 Education: Opportunities for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Vol.70, No.1(2007), pp.114-129.

13) Sharon Anne Cook, "Connecting Archives and the Classroom," *Archivaria*, No.44(1997), pp.102-117.

자료가 학교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관의 공공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전문가들간의 협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역사교사들을 위한 기록물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특히 지역사 자료를 역사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¹⁴⁾가 학위논문으로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김민정의 연구¹⁵⁾는 중학교 국사 교육에서 향토사 자료 이용 현황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논문은 수업에서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경험과 그 주제 분야 및 자료 유형, 활용 가치 등을 해당 지역 국사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역사 수업에 향토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사의 향토사 활용을 위한 수업 준비 부족이나 자료 및 수업 시간의 부족 등으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수업에서 향토사 자료가 사용되기 위하여 향토사 수업을 개설하거나 지역 기관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Ⅲ. 역사교사 기록물 이용행태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역사 수업이 향후 국내의 기록관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역사 교사의 기록물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는 설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 두 단계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1991년 설립되어 현재 국내

-
- 14) 강성기, 초등학교에서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강원대 교육대학원, 1998).
장재훈, 고지도를 활용한 연가지역 향토사 학습 방안(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2).
우주영, 국사과 수업 시 향토사 자료 활용(석사학위논문, 안동대 교육대학원, 2002).
이문숙, 서천지역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국사학습 지도 방안(석사학위논문,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3).
배수일,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국사 학습 지도 방안 연구: 구미지역의 서원자료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3).
오금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역사 자료 활용 방안: 전북 익산지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4).
김금희, 사회과 교육에서 향토사 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역사수업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순천대 교육대학원, 2005).
- 15) 김민정, 중학교 국사 교육에서의 향토사 자료 활용 실태와 분석: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2003).

역사교사의 1/3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전역모)¹⁶⁾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사전 인터뷰는 전역모 회원으로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근현대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의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각 서울에 소재한 용산고, 영신고, 서울노원고 교사였으며, 2007년 3월 27~4월 7일 사이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수업에서 기록물 활용 정도와 선호하는 유형, 기록물 입수방법, 특별히 기록물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 시대나 분야, 웹의 이용정도, 기록물 이용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기록물의 수업에서의 가치를 관심유발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 등으로 보고 있었으며, TV 영상물이나 특정 단체에서 만든 역사자료집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세미나 참석이나 동료를 통하여 기록물을 입수하고, 생활사 분야와 근대 인물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다는 점, 기록물 검색의 어려움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인터뷰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본 논문의 설문지 문항 및 예시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4개 문항), 기록물 및 기록정보원 이용 현황(22개 문항), 기록물 이용시 장애요인 및 이용 활성화 방법에 대한 의견(10개 문항), 인적사항 문의(6개 문항) 등 5개 부분,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전역모의 16개 지역모임 중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한 인천과 대구 지역모임 회원 각각 13명과 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¹⁷⁾. 본 연구자가 이 두 지역 모임 대표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두 대표가 각 지역모임 회원들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반송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역사교사의 인구통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응답자의 재직 고등학교 유형은 인문계 25명(83%), 실업계 4명(13%), 특수목적고 1명(3%)이었다. 또한 국공립고등학교 교사 23명(77%), 사립고등학교 교사 7명(23%)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5명(17%), 30대 13명(43%), 40대 10명(33)%, 50대 이상 2명(7%)이었다. 성별분포는 여성 20명(67%), 남성 10명(33%)이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5월~6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2.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

역사교사들의 기록물과 기록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기록물의 활용가치, 기록관 이용경험도를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공되기 이전의 원자료로서 역사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역사자료', 이의 줄임말인 '사료', '일차자료', '기

16) 이재희,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활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2005).

17) 본 연구 계획시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의 16개 지역모임 전체를 설문대상으로 설정하고, 전국역사교사모임 본부에 설문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연구자의 요청이므로, 개별 지역모임의 대표와 연락하라는 답신을 받았다. 16개 지역모임의 대표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에 응한 모임은 2개 지역모임이었다.

록물'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조사의 설문 응답자들은 이중 '사료'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7%, 20명), 그다음으로는 '역사자료'(27%, 8명)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일차자료'나 '기록물'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3%,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관에 대한 이용경험이나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중 과반수 이상(60%, 18명)이 기록관의 자료활용 경험이 있거나, 기록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기록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 기록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참조). 그러나 37%라는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기록관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을 위한 기록관의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이전에 기록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록관 이용 경험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기록관 자료 활용 경험 있음	4	13
기록관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음	14	47
기록관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음	11	37
기타	1	3
총합계	30	100

수업에서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83%가 가치가 있다는 쪽에 응답하였고, 그중 23%는 매우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가치가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7%, 2명)와 중립적인 태도 즉,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10%, 3명)는 적었다. 또한 수업에서 기록물의 활용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결과를 통하여 역사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를 높이는 것(10%, 3명)보다는 역사자료에 대한 해석(43%, 13명)이나 이해력을 높이는 것(47%, 14명)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즉, 응답자들은 기록물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해, 즉 수업목표 그 자체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표 2〉 역사 수업에서 기록물의 가치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수업에 대한 관심 및 집중도 향상	3	10
역사에 대한 이해력 제고	14	47
역사자료 해석 능력 제고	13	43
총합계	30	100

3. 기록물 이용 현황

가. 기록물 활용 정도와 유형/분야별 기록물의 이용

설문응답자들은 수업에서 매우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록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정도로 활용한다고 응답(50%, 15명)하였으며, 비교적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자도 33%(10명) 있었다. 그러나 수업에 기록물을 활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표 3 참조).

〈표 3〉 수업에서 기록물 활용 정도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	0	0
비교적 많이 활용	10	33
보통	15	50
거의 활용하지 않음	5	17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	0	0
총합계	30	100

수업에 자주 사용되는 기록물의 유형으로는 동영상물(40%, 12명)과 책을 포함한 문서형태의 자료(40%, 12명)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유형의 자료에 비하여 사진(17%, 5명)이나 지도(3%, 1명) 등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을 수업에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역사교사들이 중요시 하는 기록물의 유형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결과 문서형태(50%, 15명)-동영상(40%, 12명)-사진(10%, 3명)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수업에서 기록물을 사용하는 것이 관심도의 집중보다는 역사자료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설문결과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동영상물이나 사진 자료는 일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보다는 기록물 자체가 수업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문서형태의 자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물을 자주 활용하는 주제 분야와 역사시기, 소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0%, 15명)는 문화 및 예술사 관련 수업에서 기록을 가장 자주 활용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정치사 수업 역시 기록물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3%, 13명), 생활사 수업에 기록물을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7%, 2명). 경제나 법률사 수업에 기록물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시대별로는 근현대사 수업에서 가장 많이(73%, 22명) 기록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고대사 수업에 기록물을 많이 활용한다는 응답자가 일부 있었다.

기타로는 시대별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업에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기록물의 소재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것(60%, 18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물, 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이나 단체, 장소에 관한 기록물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기타로는 전반적으로 사용한다(7%, 2명)는 견해가 있었다(표 4 참조). 이러한 분야별 기록물 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통하여 역사수업에서 특정 시대나 주제, 소재와 관련된 역사자료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기록물을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분야: 시대, 주제, 소재별

시대별	응답자(명)	비율(%)	주제분야별	응답자(명)	비율(%)	소재별	응답자(명)	비율(%)
고대사	7	23	문화/예술사	15	50	인물	5	17
중세사	0	0	정치사	13	43	장소	0	0
근현대사	22	73	경제/법률사	0	0	사건	18	60
기타	1	3	생활사	2	7	조직/단체	0	0
			기타	0	0	제도	4	13
						기타	3	10
총합계	30	100	총합계	30	100	총합계	30	100

나. 기록물 선택기준과 활용 방법

수업에 활용할 기록물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63%, 19명), 기록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도 23%(7명) 있었다. 또한 일부 응답자는 자료의 물리적 상태, 즉 사진의 선명도 등이 중요하다(13%, 4명)고 답하였다. 그러나 입수하기 쉬운 자료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앞서도 언급한 수업에서의 기록의 가치가 학생의 관심 유발의 차원이 아닌 수업의 내용 그 자체에 필요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수업에서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63%, 19명)고 답했으며,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여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3%(10명)였다. 기록물이 있는 웹사이트를 빔프로젝터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3%, 1명). 즉, 디지털 정보를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기 보다는 인쇄물을 활용한 수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물이 가장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고등학교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인문계고(63%, 19명), 실업계고(20%, 6명), 특수목적고(13%, 4명),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로는 학교 유형별 차이보다는 교사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이는 응답이 있었다(표 5 참조).

〈표 5〉 기록물 이용이 활발한 고등학교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인문계고	19	63
실업계고	6	20
특수목적고	4	13
기타	1	3
총합계	30	100

특정 유형의 학교에서 기록물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24명이 응답하였다. 인문계고라고 답한 응답자 중 개방형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은(14명) 학생들의 이해력이 높고(5명), 수능에서 기록물을 활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8명)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외 인문계고가 가장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학습하고(1명), 역사수업에 시간 배정이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되어 있고(2명), 역사수업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점(1명)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¹⁸⁾ 실업계고에서 기록물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은(6명) 모두 입시 부담이 없고, 수업진도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므로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부족하므로 흥미를 끌기 위한 영상자료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목고를 선택한 응답자들(4명)은, 과학이나 외국어 등의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들보다 관심도와 이해력이 높고, 인문계고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덜한 것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역사교사들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기록물 이용의 정도가 다를 것이며, 그러한 차이는 주로 학생들의 역사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 입시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기록물 탐색 경로

역사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기록물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발견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비공식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출판물을 이용하여 기록물을 찾는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주로 2차자료에 수록된 각주나 참고문헌 등을 보고 필요한 기록물을 발견하게 된다고 응답(41%, 12명)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이나 도서관 및 연구소 등 비영리 단체에서 작성한 목록(31%, 9명)도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신문이나 상업적 기관의 목록도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표 6 참조).

18) 두 가지 이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개별 처리하였음.

〈표 6〉 기록물 탐색 방법: 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각주 혹은 참고문헌 등을 보고 찾을	12	41
개인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작성한 목록	9	31
상업적 기관이 발간한 목록, 자료집	2	7
신문에 나타난 정보	3	10
출판물을 이용한 탐색 하지 않음	2	7
기타	1	3
총합계	29	100

출판물을 이용하여 기록물을 찾을 경우 어려운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9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출판물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거나(4명), 자료를 찾는 것보다는 찾는 자료에 접근하거나(4명), 방대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가 수록된 부분을 찾는 것(1명) 등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기록물을 찾는 경우 거의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검색엔진을 활용한다고 응답(48%, 14명)하였으며,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의 웹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검색한다는 응답자들이 28%(8명), 역사교사모임 등 교사중심의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경우도 17%(5명) 있었다(표 7 참조). 또한 기록물을 찾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는 기관의 웹사이트가 있는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응답자 중 21명이 답하였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수(8명)가 국사편찬위원회를, 그다음으로는 네이버(5명) 웹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답하였다. 그 외 국회도서관(1명), 민족문화추진위원회(1명),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1명), 역사교사모임(4명), 박물관(1명) 웹사이트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기술한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검색의 편의성, 자료의 풍부, 일차자료에 대한 해석과 번역 제공, 교사들이 작성한 자료는 현장 수업에 적용하기 쉬움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자료를 탐색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꼭 맞는 자료가 없다(3명), 검색이 어렵다(3명), 자료 전체를 볼 수 없다(3명),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의심된다(3명), 한자의 해석 등 찾은 자료를 수업목적에 맞게 가공하기가 어렵다(2명)고 답하였다.

〈표 7〉 기록물 탐색 방법: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개별 도서관의 목록 혹은 도서관의 협동 목록	2	7
기록물 소장한 기관의 웹사이트	8	28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14	48
역사교사모임 등 교사 중심의 커뮤니티형 웹사이트	5	17
역사 교사 등 특정 개인의 웹사이트	0	0
총합계	29	100

비공식 경로 중에서는 주변에 알고 있는 동료교사에게 문의하는 경우(61%, 17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에게 문의(25%, 7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록물을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교사의 도움을 받아 기록물을 찾는다(11%, 3명)고 하였다.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여 기록물을 찾을 경우 어려운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사실의 진위여부나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비용의 문제, 누가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들 세가지 유형의 탐색경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0%(24명)가 온라인을, 13%가 출판물을 통한 탐색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비공식경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3%(1명)였으며 기타 3%(1명)가 있었다. 이들 세가지 경로 이외에 기록물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방송국이나 현책방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있었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기보다는 인쇄물을 활용한다는 결과와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교사들이 수업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의 선호의 문제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물 탐색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93%, 28명)들이 이러한 탐색을 주로 학기 중에 실시한다고 하였다. 방학 중에 기록물을 탐색한다는 응답자는 7%(2명)에 그쳤다. 즉,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방학이 역사수업을 위한 기록물을 탐색하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기록물 이용시 장애요인 및 활용 방안

가. 기록물 이용시 장애 요인

기록물 이용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한 29명의 응답자 중 수업일정에 쫓겨 기록물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41%, 12명)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교사의 시간이 부족하여 기록물을 찾고, 그것을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28%, 8명)가 많았다. 기록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21%, 6명)는 점과 교실에서 기록물을 활용할 기기가 부족하다(10%, 3명)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록물의 질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는 장애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교사의 시간 부족은 앞서 언급한 이들의 기록물 탐색시기와 관련있다고 보여진다(표 8 참조).

기록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47%, 14명), 그 다음으로는 동료들에게 질문(40%, 12명)하거나, 소속된 웹사이트의 커

뮤니티 회원에게 질문(10%, 3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위의 세가지 방법 모두 활용한다(3%, 1명)는 응답자가 있었다.

〈표 8〉 기록물 수업 활용시 문제점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수업일정	12	41
기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음	6	21
기록물의 질(사진의 퀄리티 등)이 떨어짐	0	0
교실에서 기록물 사용할 기기의 부족	3	10
저작권 문제	0	0
교사의 시간 부족	8	28
총합계	29	100

기록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 대다수(83%, 25명)는 기록물의 존재유무 확인과 존재가 확인되었다더라도 그것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 또한 기록물을 입수하는데 드는 비용(10%, 3명)과 기록물에 대한 가치판단의 어려움(7%, 2명)이 장애가 된다는 이용자도 일부 있었다.

나. 기록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40%, 12명)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해석을 추가해 놓은 자료집이 풍부하게 제작되어야 한다(33%, 10명)는데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수업단위에 맞추어 필요한 기록물을 잘 제시해 놓은 교수안이 풍부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13%, 4명)는데 답하였다. 그 외에 교사를 위한 기록물 활용에 대한 전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7%, 2명), 컴퓨터, 빔프로젝터, 인터넷 연결 등 교실에서의 하드웨어 설비가 우선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7%, 2명)에 응답하였다(표 9 참조).

〈표 9〉 수업에서 기록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컴퓨터, 빔, 인터넷 등 교실에 하드웨어 설비	2	7
기록물 통합검색할 수 있는 DB 구축	12	40
기록물 해설 자료집	10	33
기록물 사용이 제시된 교수안 개발	4	13
교사를 위한 기록물 활용 교육 실시	2	7
총합계	30	100

만일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과단위에 맞추어 제시된 교수안이 개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수업에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60%(18명)는 자신의 교수안 작성에 참고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40%(12명)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수안은 누가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인 67%(20명)가 역사교사와 연구자, 아키비스트가 협력작업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 역사교사(17%, 5명), 사서나 아키비스트 등의 자료전문가(10%, 3명), 역사전공 연구자(7%, 2명)가 개발해야한다는 등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교수안 개발 주제에 대한 견해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역사교사	5	17
역사전공 연구자	2	7
자료전문가(사서, 아키비스트 등)	3	10
역사교사, 연구자, 아키비스트 협력작업	20	67
총합계	30	

현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시대별, 주제분야별, 소재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시대 중에서는 고대사(57%)가, 주제 중에서는 생활사(60%, 18명), 소재 중에서는 제도(40%, 12명)에 관한 기록물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앞서 기록물을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앞서, 고대사와 생활사, 제도는 각 분야에서 기록물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용될 수 있는 기록물의 양이 수업에서 기록물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 기록물이 부족한 분야

시대별	응답자(명)	비율(%)	주제분야별	응답자(명)	비율(%)	소재별	응답자(명)	비율(%)
고대사	17	57	문화/예술사	0	0	인물	3	10
중세사	11	37	정치사	4	13	장소	2	7
근현대사	2	7	경제/법률사	8	27	사건	1	3
			생활사	18	60	조직/단체	11	37
						제도	12	40
						기타	1	3
총합계	30	100	총합계	30	100	총합계	30	100

IV. 설문결과 요약 및 고찰

1. 설문결과 요약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인식

본 설문에 참여한 역사교사들의 경우 사료, 일차자료, 역사자료, 기록물 등 원자료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 중에서 사료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기록물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지만(47%),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13%).

교사들은 역사 수업에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83%), 그 가치는 주로 수업에 대한 집중도 향상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해력과 기록물 해석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90%)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기록물 이용현황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사용하는 경우(83%)가 더 많았으며, 주로 사용하는 기록물의 유형은 책을 포함한 문서자료와 동영상물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록물이 사진이나 지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근현대사(73%)와 문화/예술사(50%) 및 정치사(43%), 사건(60%)에 관한 기록물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록물을 선택할 때 입수의 편의성이나 자료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63%)나 충분한 설명의 제공(23%)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 기록물은 디지털 형태보다는 주로 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63%)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기록물 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실업계나 특수목적고보다는 인문계고에서 이용이 활발할 것(63%)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인문계고의 학생들의 이해력과 수능에서의 기록물을 활용한 문제 출제 등을 들었다.

다. 기록물 탐색 경로

설문 응답자들은 기록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출판물이나 온라인, 비공식 채널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특히 온라인을 선호(8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물을 통하여 기록물을 탐색할 때는 문헌의 각주나 참고문헌을 이용하며(41%), 비영리단체에서 작성한 목록도 활용(31%)

하고 있었다. 출판물을 통하여 자료를 찾는 경우엔 필요한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출판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거나 설명 찾았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온라인을 통하여 기록물을 찾을 때는 주로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을 사용(48%)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28%)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온라인 탐색시 정확히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찾은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의심되고, 한자의 해석 등 수업용으로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주로 주변의 동료교사에게 문의하거나(61%),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에게 문의(25%)하여 기록물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물을 찾을 때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기록물 탐색은 거의 학기 중(93%)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장애요인과 활용방안

응답자들은 기록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수업일정이 여유가 없고(41%), 교사의 시간이 부족하며(28%), 기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21%)는 것을 들었다. 기록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용 등에 대한 의문은 주로 웹사이트 검색(47%)이나 동료에게 문의(40%)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기록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존재 유무 확인과 소재파악이 가장 어렵다(83%)고 하여 입수 비용이나 기록물에 대한 가치판단의 어려움 등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록물이 역사수업에서 보다 활발히 이용되기 위하여 기록물을 통합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하며(40%), 기록물을 해설해 놓은 자료집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33%)고 답하였다. 또한 기록물 사용이 제시된 교수안을 개발(13%)하는 것도 기록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특히 교수안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기록물이 교과단위에 맞추어 잘 제시되어 있다면, 자신의 교수안 작성에 참고하거나(60%), 적극 활용할 것(40%)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교수안이 역사교사와 연구자 및 아키비스트가 협력하여 개발해야한다(67%)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또한 현재 특히 고대사(57%), 생활사(60%), 제도 및 단체(77%)와 관련한 기록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해석과 논의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직 역사교사들에게 아직 기록물 혹은 기록관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기록물이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적 측면보다 그 자체가

수업의 목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앞서 이론적 부분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특히 역사교육의 경우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방식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역사적 사고력 육성'을 목표로 한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역사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과의 교수학습에 지도나 사진, 기록물, 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⁹⁾ 그 평가에 있어서도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이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조직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또한 질문기반 교육이나 문서기반 질문 등이 중시²⁰⁾되고 있어, 수업에서의 기록물 활용은 점차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찾기 위하여 기록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기록관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이것은 기록관이 역사수업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기 이전에 이들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과 기록관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역사교사들이 수업에 기록물을 활용하는 목적이 학생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자체가 교과과정에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역사교사들이 동영상 및 사진자료보다 문서형태의 기록물을 좀더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향후 기록관에서 초·중등학교를 위한 기록물 서비스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록물이나 기록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홍보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교과과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맞는 기록물을 찾아 수업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기록물 이용현황 및 기록물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역사교사들은 현재 수업에서 근현대사와 문화/예술사 및 정치사,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대사나 생활사, 제도 및 단체에 관련한 기록물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두 항목의 설문결과를 연계하여 볼 때 특정 분야 기록물의 부족은 해당 분야 수업에서 기록물의 활용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록관에서 교사를 위한 기록물 개발 분야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물 탐색행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교사들이 인쇄물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 찾기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즉, 역사교사들이 디지털 형태의 기록물이나 탐색방법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은 디지털 형태보다는 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실의 기기부족, 수업효과적 측면 등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기록관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기록관의 역사수

19) 교육부, *op. cit.*, pp.82-114.

20) Hendry, *op. cit.*, p.114.

업 지원 자료가 온라인 방식의 이용만을 전제로 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으로 기록물을 탐색할 경우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찾을 수 없고, 찾은 자료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설문결과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기록물의 경우 텍스트형 원문이기보다 이미지형 원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원문에 대한 충분한 주제어의 부여는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색의 정확성과 주제어의 정확한 부여를 위한 시소러스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아울러 한문자료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공만이 아닌 역사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번역과 해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기록물 및 그 해석자료를 구할 경우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기록관이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점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등학교 유형별로 역사수업에서 기록물 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문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응답자들이 제시한 차이의 원인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의 의견이 실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유형별 역사수업의 특징 등을 심층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교별 특성화된 기록물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이 상당히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수업일정, 교사의 시간부족, 기록물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은 기록물 이용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역사수업에서 기록물이 더 활발히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석하여 수업에 맞도록 가공하는 절차에 드는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기록물을 해설한 자료집이나 교과 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교수안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록관은 교과와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기록물에 대한 배경정보와 용어해설, 번역문 등의 보충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사료집²¹⁾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사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아키비스트만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인 역사교사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²²⁾ 이것은 기록물 서비스 개발과정에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향후 개발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물에 대한 가공 서비스 이전에 더 일차적인 문제는 교사들이 기록물의 존재 유무와 소재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이 제안하였듯이 특정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검색될 수 있는 목록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김상호, “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에 관한 고찰: 호주와 미국, 영국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1호(2004), p.99.

22) 심성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성 및 개발절차,” 한국기록학회 제55회 월례연구회 발표문, 2007.9.15, p.41.

V. 결 론

현재 초·중등학교는 기록관 고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현재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차세대 기록관 이용자나 기록관 후원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²³⁾ Gilliland-Swetland의 지적²⁴⁾처럼 초·중등학교를 지원하는 기록관 서비스를 통하여 아키비스트는 사회와 기록관의 관련성을 확장시키고, 문서문해(record literate)를 신장시킬 수 있으며,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기록관 서비스의 주 고객이 될 수 있으며, 그로써 기록관의 사회적 역할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행되었다. 어떠한 유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든 그것을 개발하기 이전에 대상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기록물 이용현황을 조사 분석한 이용자 연구이다. 그러나 두개의 지역 역사교사모임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고등학교의 역사교사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전체 초·중등학교 교사를 모집단으로 한 좀더 규모가 큰 이용자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각급 학교별, 특히 고등학교 유형별 기록물 이용의 차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3) Hendry, *op. cit.*, p.114.

24) Gilliland-Swetland, *op. cit.*, p.137.